법제처장, 보훈병원 방문 참전 유공자 격려



- 법제처장과 임직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1일 중앙보훈병원(강동구 둔촌동 소재)을 방문하여 장기 치료중인 전·공상 군경들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.

  ※ 중앙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1,400여 병상 규모의 종합의료기관으로, 현재 900여명의 전 · 공상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.

- 제정부 법제처장과 직원들은 6 · 25 참전 유공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병원 재활시설 등을 둘러본 후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유공자들을 따뜻하게 잘 돌봐 줄 것을 당부했다.

- 제정부 처장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 있었다면서,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예우와 생활보장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July 2014

법제처, 역대 처·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



- 법제처(처장 제정부)는 6월 11(수) 오후 7시에 한국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역대 법제처 처·차장들과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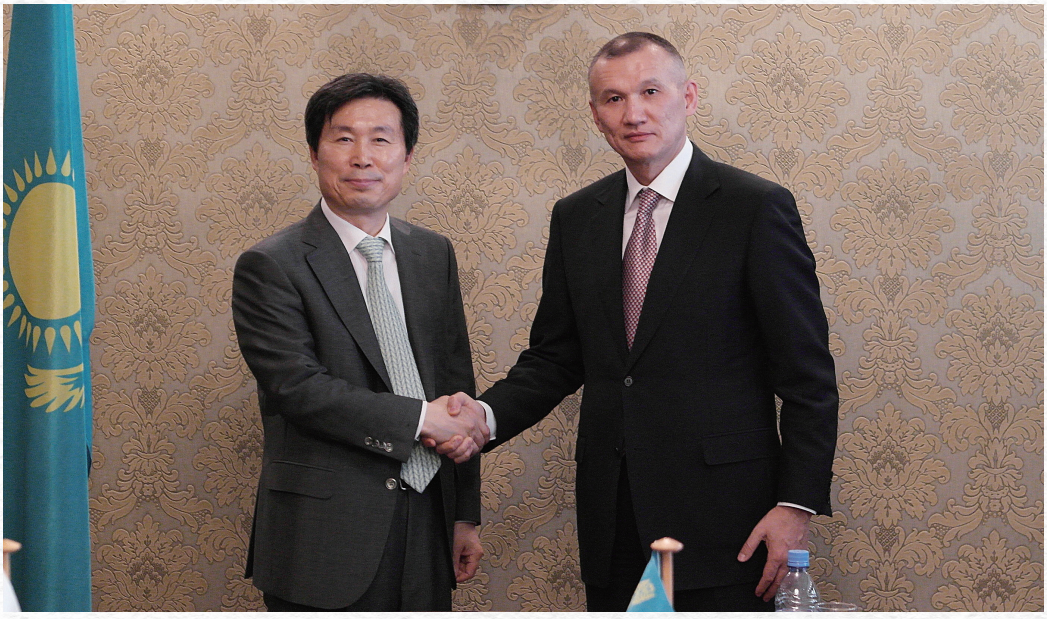
-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올해 추진하는 중점 추진업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.
  - ⋯› 김영균 전 처장을 비롯하여 전직 처·차장 20명은 후배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법제처의 발전방향과 2014년도 법제처 주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제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했다.

법제처, 카자흐스탄 법무부 등과 「법제 교류 협력 양해각서」 체결

법제경험 공유, 인력 교류 등 법제분야 협력의 확대 기반 마련

- 법제처(처장 제정부)는 6월 19일(목)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'법제 교류 ·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'를 체결했다.
  - ⋯› 이번 서명식은 한-카자흐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,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마쉐브 마크히토비치(Imashev Mazhitovich) 카자흐스탄 법무부장관이 서명했다.

-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목적은 양국 간 법제 교류·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, 그 내용은 '인적교류 증진', '법제정보 및 발간물 교환', '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'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


July 2014



- 제정부 법제처장은 “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법제분야의 교류·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.”면서
  ⋯› “법제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‘유라시아 이니셔티브’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- 한편, 법제처는 지난해 카자흐스탄 법제기관과 교류를 시작한 이후 양국 간 법제 교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,
  ⋯› 8일 카자흐스탄 의원입법의 주요 사전 검토·연구기관인 카자흐 인문·법률대학과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
- 제정부 법제처장은 20일에는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산하 입법조사연구소를 방문하여, 우즈베키스탄과의 법제협력 관계도 더욱 돈독히 다질 예정이다.

-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법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,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경험 공유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제한류(法制韓流)를 세계 속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.